

# 신안비금초등학교, '창의융합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진로체험 활동·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다양한 영역요소 융합 교사들, 전문적 학습공동체 통해 1학기 마치는 책거리 계획

신안 비금초등학교(교장 김대성)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너와 나 마음 잇기, 생각 잇기'라는 주제로 창의융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기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체험학습 및 야외활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창의융합형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그래서 진로 체험 활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 STEAM 활동, 언플러그드 SW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요소를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친구들과 재잘재잘 웃으며 뛰어놀아야 할 학생들이 서로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고 접촉이 빈번한 활동은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이 안타까워 교사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1학기를 마치는 책거리를 계획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였다.

첫째 날에는 에코백, 보석 십자수 등 5개의 체험 교실을 돌려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에코백 교실에서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에코백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팔링수 만들기 교실에서 학생들은 얼음과 팔, 연유, 과일 등을 각자의 기호에 따라 얹어 자신만의 팔링수를 만들었다.

또한 언플러그드 보드 게임 교실에서는 스타벅버거, 유레카 게임, 맛있는 코딩 등 다양한 보드 게임을 즐겼으며 보석십자수 교실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보석을 붙여 예쁜 케릭터 그림

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체육관에서는 소인수로 나눠 거리두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발야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교실과 특별실에 영화 상영관을 만들어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가 익숙해진 듯 질서 있는 모습으로 활동에 열중하였다.

6학년 유연진 학생은 "바로 다음 주에 2학기가 시작이라 어색했는데, 다양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다 보니 1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기분이다."며 후기를 남겼다.

정정오 학생은 "집중해서 만들다 보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머리가 차분해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희 학생은 "오늘 체험활동을 해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동할 때가 너무 그립다."고



말했다.

김대성 교장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창의적인 발상과 집단지성의 모범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민주시민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

고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 발전위한 공동사업 추진

### '제이에스씨(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과 교육 협치 실현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 기관 및 기업과 교육 협치를 통해 광주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 '제이에스씨(주)'와 지난 8월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제이에스씨(주)'는 보유중인 약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동영상과 VR기기

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동영상 자료는 유치원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VR기기는 체험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과 업무협약

을 체결해 양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 및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유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채미숙 원장은 "유아교육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수 매체를 개발하는 데 적극 앞장 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 순천대, 한국연구재단 신규 15개 연구과제(9.7억 원) 선정



국립순천대학교는 최근 발표된 한국연구재단 '2020년 학술·인문사회사업 및 과학 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에 15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2020년 학술·인문사회사업 및 과학 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은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의 미래역량을 확충하고 대학의 국가연구개발(R&D) 성과제고와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이공기초 중견연구 분야(2명: 이민아, 김병철 교수), △이공기초 생애초기연구 분야(김경희 교수)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대상성(2명: 함주리 연구원, 문홍석 학술연구교수), △학술·인문사회사업 중견연구 자지원사업(2명: 김훈호, 이광배 교수),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7명: 정광주, 강향숙, 윤주영, 이정금, 이경일, 안명덕, 나현숙 강사), △학술·인문사회사업-학문후속세대대상성(김초영 연구원) 분야에 총 15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순천대는 이번에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과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등에 1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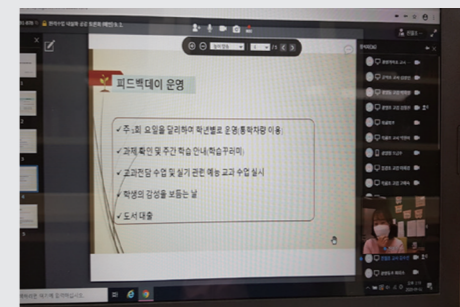
과제가 선정돼 대학 내 역량 있는 교수(강사) 및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향후 사업에 선정된 순천대 연구책임자들은 1~3년간 총 9억여 원을 지원받아 '분자네트워크 활용 연구' 및 '2차전지 적응성 연구'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허재선 순천대 산학협력단장은 "학술·인문사회사업 및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대상성사업에 100% 선정되는 등 순천대 신진연구진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입증하였다"며 "앞으로 선정 과제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창의성 높은 개인 연구와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해 리더 연구자로서 성장 발전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광양 교사들, '원격수업' 한 걸음 더 나아가다

### 원격수업 내실화 공감 토론회 개최...초등학교 교원 60명 참여



토론 참여자들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으로 첫째, 흥미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학습의욕 신장하기, 둘째, 수업의 정리부분에 퀴즈를 통해 학생의 학습정도 파악하기, 셋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피드백과 보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학력향상반 운영,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원격수업 취약계층을 위한 '품앗이 돌보미'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원격수업에 적합한 학급 정원 조정, 전교사 노트북 지급, 방과후 원격수업 개설 등의 정책도 제안하였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임용현 선생님(광양 덕례초)은 '우리 학교는 기본 플랫폼으로 구글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협업이 가능하고, 범용성의 특징이 있어 집단사고를 통한 수업 설계와 학생개인별 피드백, 지속적인 평가에 대단히 유리하다.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인근학교와 서로 노하우를 함께 협업하면,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교육지원청은 향후 학교장 대상 영상회의와 학부모 대상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